

기혼자녀의 성과 출생순위가 부모와의 접촉과 경제적지지에 미치는 영향

Intergenerational Contact and Financial Support Between Parents and Married Children : Children's Gender and Birth Order as Correlates

최희정(Heejeong Choi), 빈보경(Bokyoung Bin)*

Department of Consumer and Family Sciences,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intergenerational contact and financial support exchange between parents and each of their non-co-resident married children. Prior qualitative work has suggested that increased contact between parents and their married daughters may indicate a decline in patrilineal norms in contemporary Korean families. Usi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this study investigated if married daughters engage in similar levels of intergenerational contact and financial support exchange with their parents in contrast to their married brothers (first-born sons in particular). The data were drawn from the first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2006). For analyses, individuals who had at least one non-co-resident married child were selected, resulting in the analytic sample of 3,950 parents with 10,947 non-co-resident married children. Both regression with robust standard errors and sibling fixed effects regression models were estimated using the reg and xtreg procedures in STATA. Residential proximity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both parents and children were controlled in analyses. Findings suggest that, overall, parents report more frequent face-to-face contact with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ir first-born sons in comparison to other sons and daughters. Daughters, on the other hand, were found to engage in more frequent contact via phone call, mail, or email with their parents. In conclusion, we did not find a strong evidence to support the contention that patrilineal norms have softened in contemporary Korean families to the extent that has been suggested in qualitative studies.

▲주제어(Key Words): 세대관계(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세대 간 지지(intergenerational support), 세대 간 접촉(Intergenerational contact), 부계(patrilineage), 장남(first-born son)

I. 서론

가족학자들은 한국가족의 세대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전통적인 부계직계의 가족규범 하에서 아들 특히 장남에게는 부모와 동거하면서 가계를 계승하고 부모를 부양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고 '출가의 외인'인 결혼한 딸은 사실상 원가족에서 역할이 없는 것이

나 다름없었다(J. Choi, 1983; N. Han, 1997). 그런데 출가한 딸과 친정부모가 근거리에서 도구적·정서적지지를 활발히 교환하는 모습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관찰되면서 탈부계화 혹은 양계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C. Cho, 1997; Y. Lee, 2011). 세대 간 지지에서 결혼한 딸과 친정부모의 역할이 확대되었음은 이들 간의 빈번한 대면접촉을 언급한 연구나(C. Cho, 1997; J. Kim,

* Corresponding Author : Bokyoung Bin, Department of Consumer and Family Sciences, Sungkyunkwan University, 25-2, Sungkyunkwan-ro, Jongno-gu, Seoul, Korea, tel: +82-2-760-0507, E-mail: ppoyaqueen@skku.edu

2009; J. Lee, 1999) 조부모의 돌봄을 받는 초등학교 중 약 40%가 외조부모의 돌봄을 받고 있다는 정부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Statistics Korea, 2010).

그런데, 친정과의 빈번한 교류가 부계와 모계가 대등한 위치로 나아감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G. Han & S. Yoon, 2004; J. Kim, 2009; J. Lee, 1999; J. Lee, 2013; M. Sung, 2006). 이들은 친정과의 교류가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한시적, 도구적, 기능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한다(J. Kim, 2009; J. Lee, 1999; M. Sung, 2006). 예를 들어, 친정부모가 외손을 돌보는 현상은 외손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이며, 친정보다 시집의 도구적·경제적 필요를 우선시하는 딸의 태도에서 부계 중심적인 경향이 보인다는 것이다(J. Kim, 2009; M. Sung, 2006). 친정과의 밀접한 상호작용이 사실은 부계중심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는 연구도 있다(J. Kim, 2009; M. Sung, 2006).

탈부계화나 양계화의 경향에 대해 보다 면밀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세대관계가 어느 세대의 시각으로 또 어떠한 맥락에서 관찰되는가 하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선 세대관계에는 부모와 자녀라는 두 시점이 존재하는데 국내 선행연구는 주로 기혼여성이 친정과 시집에 대해 보이는 의식과 행동의 차이에 초점을 두었다(C. Cho, 1997; G. Han & S. Kim, 2010; G. Han & S. Yoon, 2004; J. Kim, 2009; S. Kim & B. Cho, 1991; J. Lee, 1999; Y. Lee, 2011). 이 중 일부는 한발 더 나아가 남편의 본가와 처가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비교하였는데(G. Han & S. Kim, 2010; G. Han & S. Yoon, 2004) 기혼자녀의 시각이 주가 되는 연구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동일현상에 대해 부모와 자녀세대의 시각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모의 시각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세대관계에 대한 연구는 두 세대의 시점 뿐 아니라 세대관계가 일어나는 맥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연구는 주로 생식가족 내에서 남편과 아내의 태도를 직·간접적으로 비교하였는데, 원가족 내에서 아들(기혼여성의 입장에서 오빠나 남동생)과 딸(기혼여성)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부계직계의 가족규범 하에서 결혼한 딸에게 사실상 아무런 역할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만약 한국가족이 양계화로 가는 과도기에 있다면 딸의 역할이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원가족에서 기혼자녀의 성과 출생순위가 세대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세대관계의 여러 측면 중 부모가 지각하는

기혼자녀와의 접촉과 경제적지지가 이들의 성과 출생순위(장남, 지차남, 장녀, 지차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밝혀 한국가족의 탈부계화 혹은 양계화 논의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는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탈부계화나 양계화 논의는 주로 질적연구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대상이 주로 도시에 거주하는 20-30대의 중산층 기혼여성에 국한된 측면이 있다(C. Cho, 1997; J. Kim, 2009; J. Lee, 1999; J. Lee, 2013; M. Sung, 2006).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세대관계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연령과 계층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의 시각에서 자녀와의 세대 간 접촉을 탐색한 국내연구는 절대대수가 편의표집에 의지하고 있으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자녀(자녀의 입장에서는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특정 자녀에 대해(예를 들어 가장 연락을 자주 취하는 자녀) 혹은 자녀 전체를 일반화시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E. Grundy & S. Read, 2012; K. Hank, 2007; S. Kim & B. Cho, 1991; K. Park, 2000; C. Tomassini et al., 2004). 그러나 자녀의 성과 출생순위에 따른 의식과 행동의 차이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한 부모 아래 모든 자녀가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세대 간 접촉과 경제적지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자녀의 성과 출생순위를 함께 고려하지 않고 성별(아들과 딸의 구별)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B. Cheong, 2007; S. Hong, 1999; J. Kim & E. Song, 2004) 부계중심적 가족주의에서 장남이 차지하는 지위를 고려할 때 출생순위와 성이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본 연구는 45세 이상의 부모 3,950명이 그들의 기혼자녀 10,957명에 대해 제공한 정보를 사용하여, 자녀의 성과 출생순위가 세대 간 접촉과 경제적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대면접촉 즉 부모와 성인자녀와의 만남은 도구적지지를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인 요건이라는 점에서, 전화나 편지 혹은 이메일을 통한 연락은 정서적지지를 제공하는 통로로서, 경제적지지는 가계계승과 부모부양의 기본요건이라는 점에서 부계중심성의 변화에 대한 논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만약 부계중심성이 약화되어 세대관계에서 아들딸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면 부모와 접촉하는 빈도나 경제적 지지교환에서 아들(장남)의 역할이 축소되고 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연구문제 1> 자녀의 성과 출생순위(장남, 지차남, 장녀, 지차녀)는 부모와 기혼자녀 간 만남(대면접촉)의 빈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기혼자녀의 성과 출생순위(장남, 지차남, 장녀, 지차녀)는 전화, 편지, 이메일 등을 통한 부모와 기혼자녀 간 연락의 빈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기혼자녀의 성과 출생순위(장남, 지차남, 장녀, 지차녀)는 기혼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4> 기혼자녀의 성과 출생순위(장남, 지차남, 장녀, 지차녀)는 부모가 기혼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1. 자녀의 성과 출생순위가 세대 간 접촉 및 경제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1) 만남과 연락

세대 간 만남이나 연락을 종속변수로 하고 대표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그 관련변수로 자녀의 성과 출생순위에 초점을 둔 국내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3년도 전국가족조사 자료를 이용한 G. Han and S. Yoon (2004)의 연구는 양가 부모가 모두 한 명 이상 생존해 있는 자녀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 간 접촉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 기혼남성의 경우에만 세대 간 접촉에서 부계 중심성이 강하게 남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기혼여성은 양가 부모를 만나고 연락하는 빈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기혼남성은 처가와 비교하여 본가를 방문하고 연락하는 빈도가 높았다. 편의표집을 사용한 양적연구(B. Cho, 1990; S. Kim & B. Cho, 1991)나 질적연구(J. Kim, 2009; J. Lee, 1999)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발견하였는데, 특히 성인자녀가 아닌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 간 접촉빈도를 자녀의 성과 출생순위에 따라 구분한 연구(B. Cho, 1990)에서 부모는 지차남이나 딸과 비교하여 장남과 자주 만나고 연락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동거하는 자녀에게도 만남과 연락의 빈도를 물었으며 3분의 1이 넘는 부모가 장남과 동거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장남과의 접촉빈도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상 언급한 모든 연구들은 자녀의 성과 출생순위와 세대 간 접촉과의 관련성을 기술통계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대표성 있는 표본을 이용하여 세대 간 접촉의 빈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그 관련변인을 다변량분석을 통해 탐색

한 연구가 국내에 비해 해외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으나 그 절대량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R. Ward et al., 2013). 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 (SHARE)의 2004년도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K. Hank, 2007)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접촉빈도를 살펴 보았다. 유럽 10개국의 자료를 활용한 이 연구에서 부모는 아들보다는 딸과 더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교환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대면접촉과 연락을 구분하지 않았다(K. Hank, 2007). Netherlands Kinship Panel Study를 이용하여 성인전기에 속하는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와 연락하는 빈도를 분석한 연구(F. Bucx, F. Van Wel, T. Knijn, & L. Hagendoorn, 2008)에서는 대면접촉과 연락을 구분하였는데 그 관련변인이 유사하였다. 어린 자녀가 있는 성인자녀는 부모와 대면접촉과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연락이 보다 빈번하였으며,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딸은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 또는 전자메일을 통한 연락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위에서 언급된 연구는 횡단 연구인데 종단연구의 경우도 성차에 대해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미국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NSFH)의 1차 2차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대면접촉만을 살펴 보았는데 부모는 아들에 비해 딸과 더 자주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두 세대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증가하면 대면 접촉이 감소하는 폭이 아들보다 딸의 경우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R. Ward et al., 2013).

2) 경제적지지

경제적지지는 그 방향에 따라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지지와 그 반대의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선행연구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G. Han and S. Yoon (2004)의 연구에서는 부부가 용돈이나 생활비 등의 지원을 시집/본가에 하는 빈도가 친정보다 높은 것으로, 반대로 친정으로부터는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빈도가 시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한국종합사회조사자료를 활용한 G. Han and S. Kim(2010)의 연구에서도 기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아내보다는 남편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경우가 더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는 아내와 남편부모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한편 2006년도 여성가족패널 1차년 자료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어머니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에서 아들과 딸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Y. Lee & S. Koh, 2011). 또한 2003년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부모는 아들에게 경제

적 지원을 가장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 Kim & M. Park, 2008). 이는 딸만 있는 가정에 비해 아들만 또는 아들이 포함된 가정에서 상속예정액과 증여예정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H. Bae(2008)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된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과 출생순위가 함께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2. 기타 부모와 자녀의 특성이 세대 간 접촉 및 경제적지지에 미치는 영향

1) 만남과 연락

세대 간 만남과 연락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특성으로 연령, 성,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수입, 건강, 자녀와의 동거 여부, 자녀수 등이 선행연구에서 고려되었다. 부모가 연령이 높을수록(E. Grundy & S. Read, 2012; A. Steinback, 2013), 결혼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에(B. Cho, 1990; K. Hank, 2007; C. Tomassini et al., 2004), 건강이 나쁠수록(K. Hank, 2007), 동거하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R. Ward et al., 2013), 자녀수가 많을수록(K. Hank, 2007), 부모와 자녀가 만나거나 연락하는 빈도가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연령(C. Tomassini et al., 2004), 교육수준(F. Buck et al., 2008), 건강(주관적으로 평가한 건강, 만성질환, 신체기능상의 장애(IADL+ADL))(B. Cho, 1990; E. Grundy & S. Read, 2012)는 세대 간 만남과 연락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한편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모와 자녀사이의 연락이 전반적으로 소원하다는 연구(F. Bucx et al., 2008; A. Steinbach, 2013)도 있다. 반면 총 자녀수가 아닌 딸의 유무가 성인자녀와 부모 간 대면접촉의 빈도를 예측한다는 연구도 있다(E. Grundy & S. Read, 2012). 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ELSA)의 1차(2002-2003)와 2차(2004-2005) 자료를 분석한 연구(E. Grundy & S. Read, 2012)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한 명 이상의 딸이 있을 때 적어도 한 명의 자녀와 일주일에 한 번 대면 접촉을 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자녀특성은 부모특성에 비해 연구가 부족하며(R. Ward et al., 2013) 앞서 살펴본 성과 출생순위 외 연령, 교육수준, 어린자녀유무, 거주근접성이 선행연구에서 고려되었다. 연령(K. Hank, 2007)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F. Bucx et al., 2008), 6세 미만의 어린자녀가 있을 때(F. Bucx et al., 2008; C. Tomassini et al., 2004) 부모와의 만남과 연락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다. 한편 거주근접성과 같은 세대관계의 구조적 측면도 중요하여 부모는 가까이 사는 자

녀와 더 자주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F. Bucx et al., 2008; J. Kim, 2009; R. Ward et al., 2013).

2) 경제적지지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지를 예측하는 부모의 특성으로는 부모의 연령, 성별, 혼인상태, 교육수준, 경제상태, 건강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은 부모가 낮은 부모에 비해(S. Kim & M. Park, 2008; S. Koh, 2011; S. Koh, 2013; Y. Lee & S. Koh, 2011), 아버지보다 어머니가(S. Kim & M. Park, 2008; S. Koh, 2013), 부모의 학력이 낮을 때(S. Kim & M. Park, 2008), 건강이 좋지 않을 때(Y. Lee & S. Koh, 2011) 성인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부모의 배우자유무(G. Han & M. Han, 2004; S. Koh, 2013; Y. Lee & S. Koh, 2011)나 교육수준(S. Koh, 2013; Y. Lee & S. Koh, 2011)은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는 연구도 있다. 자녀의 특성으로는 딸과 비교하여 아들이(G. Han & M. Han, 2004), 성인자녀의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 때(G. Han & M. Han, 2004), 부모와 가까이 살고(G. Han & M. Han, 2004), 자녀가 있을 때(S. Koh, 2013; Y. Lee & S. Koh, 2011)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지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지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특성은 대체로 경제적 지지와 일관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S. Koh, 2013)가 있는 반면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그러하다거나(S. Koh, 2011) 부모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S. Kim & M. Park, 2008; Y. Lee & S. Koh, 2011; Y. Son, 2008). 부모의 성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가 있다(Y. Son, 2008). 마찬가지로 부모가 학력이 높을수록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지지를 제공한다는 결과가 있는 반면(Y. Son, 2008)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러하다는 연구도 있어(Y. Lee & S. Koh, 2011)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부모의 건강상태는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요인이 아닌 것(G. Han & M. Han, 2004; S. Kim & M. Park, 2008; Y. Lee & S. Koh, 2011)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특성으로는 자녀가 딸일 때(G. Han & M. Han, 2004), 경제상태가 나쁠 때(G. Han & M. Han, 2004), 교육수준이 높을수록(G. Han & M. Han, 2004), 자녀(부모의 입장에서는 손자녀)가 있을 때(S. Koh, 2013),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지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의 성별(Y. Lee & S. Koh, 2011), 거주근접성(G. Han & M. Han, 2004), 자녀유무(Y. Lee & S. Koh, 2011)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연구도 있다.

이상으로 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의 접촉(만남과 연락)과 경제적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변수 중 자녀의 성과 출생순위(장남, 지차남, 장녀, 지차녀)에 초점을 두는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부계중심적 가족주의가 세대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선행연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약화되고 있다면, 그 경향이 자녀의 성과 출생순위를 통해 나타나 장남, 지차남, 장녀, 지차녀가 부모와 접촉하는 빈도나 경제적지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유사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의 2006년도 1차조사자료를 사용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은 제주도 및 도서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중고령자와 이들의 배우자에 대한 자료를 격년으로 수집하였으며(1차 자료 N=10,254) 현재 2012년도 자료까지 일반에 공개되었다. KLoSA 응답자 중 자녀가 있는 사람은 최대 10명까지의 자녀에 대해 접촉과 경제적지지 및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한 부모 아래 모든 기혼 자녀가 분석에 포함되었다(부모 N=3,950, 자녀 N=10,947). 분석에 포함된 기혼자녀는 모두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별거하는 성인자녀로 KLoSA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녀만을 대상으로 세대 간 접촉 및 경제적지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함께 동거하는 자녀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대면접촉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들과의 연락은 동거하지 않는 자녀와의 연락과 그 성격이 다를 수 있어, 세대 간 접촉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동거하는 자녀를 포함하지 않는다(F. Bucx et al., 2008; G. Han & S. Kim, 2010; G. Han & S. Yoon, 2004; K. Hank, 2007; R. Ward et al., 2014).

2. 주요변수 및 측정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부모와 성인자녀 간 접촉(만남 및 연락)과 경제적 지지(부모가 자녀로부터 제

공받는 경제적지지,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지지)이다. 만남(대면접촉)은 부모가 성인자녀와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를 측정하였고, 연락은 전화, 편지, 또는 전자 메일 등을 이용하여 자녀와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가를 측정하였다. 두 변수의 원래 응답범주는 거의 매일에서(=1)에서 연락하며 지내지 않음(=10)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통계분석을 위해 1주일에 4회 이상(=4), 1주일에 한 번에서 두세 번 정도(=3), 한 달에 한 번에서 두세 번 정도(=2), 일 년에 한 번에서 대여섯 번 정도(=1), 일 년에 한 번도 보기 힘들거나 연락하며 지내지 않는 경우(=0)로 응답범주를 재구성하였다. 자녀로부터 부모가 제공받은 경제적지지는 작년 한해 부모가 자녀로부터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 등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는가를 측정하였다.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한 경제적지지 역시 작년 한 해 부모가 자녀에게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 등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었는가를 측정하였다. 여기서 정기적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간격(예: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등)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지지를 의미하며, 비정기적인 경우는 명절이나 생신을 제외하고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지지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병원비, 학비, 불규칙적으로 주는 생활비 등). 그리고 금전적 지원은 현금으로 직접 받은 경우, 또는 청구된 금액을 대신 지불해 준 경우(예를 들어 의료비, 보험, 학비, 주택구입 할부금이나 전(월)세 등)와 같이 직접 금전으로 지원 받았음을 의미한다. 응답범주는 정기적 지원만을 받았거나 정기적 지원과 비정기적 지원을 함께 받은 경우(=2), 비정기적인 지원만을 받은 경우(=1), 지원이 없었던 경우(=0)로 연구자가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지지가 보다 규칙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주요독립변수. 기혼자녀의 성과 출생순위가 본 연구의 주요독립변수이다. 자녀는 성과 출생순위에 따라 장남, 지차남, 장녀, 지차녀로 구분하였으며 분석에서는 장남이 준 거집단을 이루도록 하였다.

통제변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부모 및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거주근접성이 통제변수로 고려되었다. 부모의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1=어머니, 0=아버지), 배우자 유무(1=별거, 이혼, 사별, 비혼, 0=배우자 유), 교육수준(1=무학에서 초등학교 졸업 및 중학교 중퇴, 2=중학교 졸업 및 고등학교 중퇴, 3=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교 중퇴, 4=전문대학교 및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가구총수입, 자가소유여부(1=자가거주, 0=전세나 월세에 거주), 근로여부(1=직장을 포함해서 자기사업, 가족이나 친척 일을 도와 주는 것 등의 일을 함, 0=일을 하지 않음), 자녀와 동거여

부(1=기혼 및 미혼자녀를 모두 포함하여 적어도 한 자녀와 동거, 0=모든 자녀와 별거), 자녀수(기혼 및 미혼자녀를 모두 포함한 아들과 딸의 수), 자녀의 성구성(기혼 및 미혼자녀를 모두 포함하여 아들만 있는 경우를 준거집단으로 하고 딸만 있는 경우와 아들과 딸 모두 있는 경우의 3범주로 구분), 건강상태가 통제되었다. 가구총수입은 함께 사는 가구원의 작년 가구 총소득으로 측정되었으며 분포가 편포임을 고려하여 4분편차(25%, 50%, 75%, 100%)를 기준으로 재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건강상태는 우울감, 주관적 건강상태, 신체기능상의 장애로 측정되었다. 우울감은 1977년 L. Radloff에 의해 개발된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10)을 1992년 K. Chon and M. Rhee가 번안·개발한 한국어 버전 10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부모는 매우 좋음(=1), 좋은 편(=2), 보통(=3), 나쁜 편(=4), 매우 나쁨(=5) 중 하나를 선택하였으며 스스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좋게 평가할수록 점수가 높도록 역코딩되었다. 신체기능상의 장애는 M. Lawton and E. Brody(1969)에 의해 개발되고 C. Won et al.(2002)에 의해 번안·개발된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과 S. Katz(1963)가 처음 개발하여 C. Won et al.(2002)에 의해 번안·개발된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을 합한 17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예를 들어 부모는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세수하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지, 부분적으로 필요한지, 전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 응답하였다. 통계분석에서는 각 문항에 대해 이들이 제공한 답변을 도움이 필요 없는 경우(=0)와 도움이 부분적 혹은 전적으로 필요한 경우(=1)로 재코딩하여 더한 총점수가 사용되었다. 신체기능상의 장애는 점수가 높을수록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움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자녀특성으로 연령, 교육수준(1=무학에서 초등학교 졸업 및 중학교 중퇴, 2=중학교 졸업 및 고등학교 중퇴, 3=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교 중퇴, 4=전문대학교 및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자가소유여부(1=자가거주, 0=전세나 월세에 거주), 근로여부(1=돈벌이가 되는 일을 함, 0=일을 하지 않음), 자녀의 자녀수, 거주근접성이 고려되었다. 부모는 각 자녀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사는지에 대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30분 이내(=1), 1시간 이내(=2), 2시간 이내(=3), 2시간 이상(=4)으로 응답하였으며, 세대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점수가 높도록 역코딩되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Regression with Robust Standard Errors와 Sibling Fixed Effects Regression Models을 함께 사용하여 자녀의 성과 출생순위가 세대 간 접촉과 경제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부모들이 최대 10명의 자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모든 자녀의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부모가 한 열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료를 자녀가 한 열을 차지하도록(즉 자녀 한명이 하나의 관측치가 되도록) 데이터를 재배열하였다. 데이터의 형태를 이와 같이 변화시키면 같은 부모를 가진 자녀들로 인해 관측치가 서로 독립적이지 않게 되며 이 점이 분석에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녀의 clustering이 분석결과에 미치는 편파성(bias)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에서는 robust standard errors를 구하였다(<Table 3, Models 1>).

한편, 같은 부모를 가진 자녀들이 분석에 동시에 포함될 경우 이들의 개인적 특성(예를 들어 교육수준)과 종속변수(세대 간 접촉)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수준변수(부모의 과거 양육행동, 유전 등)의 영향력이 통제될 필요가 있다(T. Pudrovska, 2008). 이를 위해 Sibling Fixed Effects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여 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 Models 2>에 제시되어 있다. 이 모델에서는 같은 부모를 가진 형제자매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예를 들어 부모의 성별과 같이 모델 1에 포함된 모든 부모의 특성과 KLoSA에서 측정되지 않았으나[unobserved]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성향 등)은 모두 모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P. Allison, 2002; T. Pudrovska, 2008) 모델 2에서는 자녀의 특성 즉 한 가족 내 형제자매를 구별짓는 변수만이 모델에 포함되었다. 자녀변수의 경우 모델 2의 추정치들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결과해석은 모델 2의 수치를 근거로 한다. 모델 1에 제시된 자녀특성과 관련된 결과는 가족이라는 제3의 변수의 영향력이 통제되지 않았을 때의 추정치로 독자들이 Sibling Fixed Effects Regression Model의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해 두었다.

KLoSA(2006)는 결혼한 개인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까지 설문대상으로 포함시켰는데, 연락과 같은 경우 이론상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교환하는 연락의 빈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보는 수집되지 않았다. 즉 데이터 상으로 부부는 자녀와의 만남, 연락, 경제적 지지에 대해 동일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중복된 정보를 분석에 포함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 참여한 경우 아내나 남편 한 명만이 분석에서 고려되었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우선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Table 2>에서 보다 자세히 검토하기로 하고 주요독립변수를 먼저 살펴보면(Key

independent variables of interest) 장남, 지차남, 장녀, 지차녀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특성(parent characteristics)을 보면, 부모의 평균연령은 약 68세로 어머니가 3분의 2(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응답자 5명 중 2명(40%)은 사별이나 별거 혹은 이혼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부모 대부분(78%)이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약 4분의 1정도가 종일제 또는 시간제 일을 하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Analytic Variables

Variables	Mean	(SD)	Range
Dependent Variables			
Face-to-face contact	1.58	(0.90)	0 - 4
Contact via phone, mail or email etc.	2.44	(0.87)	0 - 4
Financial support from child to parent	0.65	(0.65)	0 - 2
Financial support from parent to child	0.04	(0.21)	0 - 2
Key Independent Variables of Interest			
First-born son	0.22	(0.42)	0 - 1
Other son	0.23	(0.42)	0 - 1
First-born daughter	0.27	(0.45)	0 - 1
Other daughter	0.27	(0.45)	0 - 1
Covariates			
Parent Characteristics			
Age (in years)	67.88	(9.35)	45 - 105
Gender (1=mother, 0=father)	0.68	(0.46)	0 - 1
Marital status			
Married	0.60	(0.49)	0 - 1
Single (separated, divorced, widowed, never married)	0.40	(0.49)	0 - 1
Education			
Household income (in 10,000 won)	1446.31	(1879.12)	0 - 33000
Home ownership (1=home owner, 0=renter)	0.78	(0.42)	0 - 1
Work (1=working full or part-time, 0=not working)	0.24	(0.43)	0 - 1
Health status			
Self-rated health	2.77	(0.99)	1 - 5
Depression (CES-D10)	1.75	(0.55)	1 - 4
Functional impairment (IADL+ADL)	1.04	(3.04)	0 - 17
Coresidence with at least one child (1=living with at least one child, 0=living with no child)	0.45	(0.50)	0 - 1
Number of daughters	1.81	(1.33)	1 - 10
Number of sons	1.88	(1.08)	0 - 7
Having son(s) only, no daughter	0.14	(0.35)	0 - 1
Having daughter(s) only, no son	0.07	(0.25)	0 - 1
Having both son(s) and daughter(s)	0.79	(0.40)	0 - 1
Child Characteristics			
Age (in years)	42.84	(8.48)	21 - 77
Education	3.07	(0.93)	1 - 4
Home ownership (1=home owner, 0=renter)	0.38	(0.48)	0 - 1
Work (1=working full or part-time, 0=not working)	0.58	(0.49)	0 - 1
Number of children	1.85	(0.88)	0 - 13
Residential proximity	2.26	(1.13)	1 - 4

Data were drawn from first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2006). Respondents consisted of parents aged 45 or older who provided data for each of their non-co-resident married children (parent N=3,950, child N=10,957). Means for dichotomous variables represent proportions.

Table 2. Means of Intergenerational Contact and Financial Support Exchange by Children's Gender and Birth Order

	N	Face-to-face	Contact via	Financial support	Financial support
		contact	phone, mail, email etc.	from child to parent	from parent to child
First-born son	2,429	5.85	7.30	0.77	0.05
Other son	2,534	5.38	7.05	0.70	0.03
First-born daughter	3,007	5.40	7.39	0.58	0.04
Other daughter	2,987	5.15	7.18	0.59	0.03

Data were drawn from first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2006). Respondents consisted of parents aged 45 or older who provided data for each of their non-coresident married children (parent $N=3,950$, child $N=10,957$). Means for face-to-face contact and contact via phone, email etc. were computed using the original 10-point scales (5=five or six times a year, 6=once a month, 7=twice a month, 8=once a week).

고 있고 정신과 신체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함을 알 수 있다. 거의 절반 정도의 부모가(45%) 최소한 한명 이상의 미혼 혹은 기혼자녀와 동거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아들 2명, 딸 2명이 있고 대다수의 부모(79%)에게 아들과 딸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의 평균연령은 약 43세로 3분의 1(38%)이 넘는 자녀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58%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세대에게는 약 2명 정도의 자녀가 있으며 부모와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약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의 거리에 떨어져 살고 있었다.

<Table 2>는 본 연구의 주요 종속변수인 접촉과 경제적 지지의 평균값을 장남, 장녀, 지차남, 지차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만남의 경우 빈도가 장남이 가장 높아 1달에 한 번 조금 못 미치게 부모와 대면접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장녀, 지차남, 그리고 지차녀의 순서로 드러났다. 반면 연락의 경우 장녀가 1달에 두 번 조금 넘는 빈도로 부모와 연락하였으며 그 다음이 장남, 지차녀 그리고 지차남의 순서로 나타났다. 경제적지지를 보면, 부모는 지차남, 장녀와 지차녀에 비해 장남으로부터 더 규칙적으로 경제적지지를 제공받고 있었다. 또한 부모는 장남에게 경제적 지지를 가장 규칙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장녀로 나타났다. 지차남과 지차녀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 제시된 기술통계결과는 전반적으로 세대관계의 중심이 여전히 아들 특히 장남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2. 성인자녀-부모 간 접촉과 경제적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자녀의 성과 출생순위가 접촉에 미치는 영향

<Table 3>의 face-to-face contact Model 2에서는 자녀의 성과 출생순위가 대면접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앞서 분석방법에서 언급하였듯이 Sibling Fixed Effects Model의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모는 지차남

($b=-.05, p<.05$), 장녀($b=-.08, p<.01$), 지차녀($b=-.09, p<.001$)보다 장남과 자주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화, 편지, 이메일을 이용한 연락의 경우(<Table 3>의 contact via phone, mail, email etc. Model 2) 장녀($b=.11, p<.001$) 및 지차녀($b=.06, p<.05$)와의 접촉빈도가 장남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장남과 지차남은 연락빈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b=-.02, ns$).

2) 자녀의 성과 출생순위가 경제적지지에 미치는 영향

부모가 자녀로부터 받은 경제적지지를 살펴보면(<Table 3>의 financial support from child to parent Model 2), 부모는 지차남($b=-.06, p<.01$), 장녀($b=-.05, p<.05$), 지차녀($b=-.07, p<.01$)와 비교하여 장남에게 보다 규칙적인 경제적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한 경제적지지를 살펴보면(<Table 3>의 financial support from parent to child Model 2) 부모는 지차남($b=-.01, p<.05$)이나 지차녀($b=-.02, p<.05$)와 비교하여 장남에게 보다 정기적으로 경제적지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지지의 규칙성에서 장남과 장녀와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3) 기타 부모와 자녀변수가 접촉과 경제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독립변수 외 통제변수의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세대 간 접촉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특성 및 자녀특성 중 공통점을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 모두 연령이 낮고 자가에 거주할 때 세대 간 만남과 연락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부모의 경우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교육수준이 높을 때, 우울감이 낮을 때, 아들의 수가 적을수록 자녀와의 접촉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의 경우 부모와 근거리에 거주할 때 부모와의 접촉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특성에서 세대 간 접촉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세 가지 요인을 살펴보면 가구총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신체기능상의 장

Table 3. Parameter Estimates of Regression with Robust Standard Errors and Sibling Fixed Effects Regression Models of Face-to-Face Contact, Contact via Phone, Mail, Email etc. and Financial Support

	Face-to-face contact		Contact via phone, mail, email etc.		Financial support from child to Parent		Financial support from parent to child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Parent Characteristics								
Covariates								
Age (in 10 years)	-0.04**		-0.06***		0.05***		-0.01***	
Mather (0=father)	0.04*		0.04*		0.03		0.00	
Single (0=married)	-0.02		-0.02		0.01		0.01*	
Education	0.05***		0.06***		-0.02*		0.02***	
Household income	0.01*		0.01		-0.03***		0.01***	
Home ownership (0=renter)	0.08***		0.07***		0.02		-0.01*	
Work (0=not working)	0.00		-0.00		-0.07***		0.00	
Depression	-0.04**		-0.14***		-0.07***		-0.02***	
Self-rated health	0.01		0.00		-0.01		0.00	
Functional impairment (IADL+ADL)	0.01*		0.00		0.00*		0.00	
Coresidence with at least one child (0=living with no child)	-0.01		-0.03		-0.04**		-0.02***	
Number of daughters	0.00		-0.01		0.01		0.00	
Number of sons	-0.02*		-0.04***		-0.02**		0.00	
Having only daughter(s),no son (0=having only son(s))	0.06		0.13*		-0.07		0.03	
Having both son(s) and daughter(s) (0=having only son(s))	-0.02		0.00		-0.04		0.00	
Child Characteristics								
Key Variables of Interest								
Other son (0=first-born son)	-0.09***	-0.05*	-0.07**	-0.02	-0.07**	-0.06**	-0.01	-0.01*
First-born daughter (0=first-born son)	-0.07**	-0.08**	0.17***	0.11***	0.00	-0.05*	0.00	-0.01
Other daughter (0=first-born son)	-0.12***	-0.09***	0.08**	0.06*	-0.03	-0.07**	-0.01	-0.02*
Covariates								
Age (in 10 years)	-0.06***	-0.06**	-0.08***	-0.07***	0.01	0.02	0.00	0.00
Education	0.06***	0.02	0.13***	0.03*	0.11***	0.09***	0.00	0.00
Home ownership (0=renter)	0.04*	0.08***	0.08***	0.10***	0.17***	0.15***	0.01*	0.00
Work (0=not working)	0.01	0.01	0.06**	0.01	0.14***	0.09***	0.00	0.00
Number of children	0.00	0.00	0.01	0.01	0.01	0.00	0.00	0.00
Residential proximity	0.48***	0.47***	0.23***	0.22***	0.01**	0.01	0.00	0.00*
Constant	0.82***	0.73***	2.32***	2.06***	0.00	0.20*	0.12***	0.05

Data were drawn from first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2006). Respondents of parents 45 or older who provided data for each of their non-coresident married children (parent N=3,950, child N=10,957). Models 1=Regression with robust standard errors, Models 2=Sibling fixed effects regression models.

* $p < .05$, ** $p < .01$, *** $p < .001$

애가 심할수록 자녀와의 대면접촉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딸만 있는 부모가 아들만 있는 부모에 비해 자녀와의 연락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특성에서는 자녀의 교육수준은 연락에 영향을 미쳐 자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연락이 빈번하였다.

다음으로 경제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또 사회경제적 수준(교육수준, 수입)이 낮을수록 자녀가 부모에게

보다 규칙적으로 경제적 지지를 제공하였고, 그 반대의 경우는 부모가 자녀에게 보다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지를 제공하였다. 그 외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변수를 보면 부모가 일을 하지 않을 때, 우울감이 낮을 때, 신체기능상의 장애가 많을수록, 동거하는 미혼이나 기혼자녀가 없을 경우, 아들의 수가 적을수록 기혼자녀가 부모에게 보다 규칙적으로 경제적 지지를 제공하였다. 자녀변수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고,

자가 소유자이며, 일을 할 때 부모에게 보다 규칙적으로 경제적지지를 제공하였다.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지지의 경우 부모에게 배우자가 없을 때나 자가소유주가 아닐 때, 우울감이 낮을 때, 미혼이나 기혼자녀와 동거하지 않을 때 자녀에게 경제적지지를 보다 규칙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특성으로는 거주근접성이 유의하여 부모는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보다 규칙적으로 경제적지지를 제공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와의 접촉과 경제적지지가 기혼자녀의 성과 출생순위(장남, 지차남, 장녀, 지차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밝혀 한국가족의 변화에 대한 논의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현재 한국가족이 탈부계화 혹은 양계화라는 과도기에 있다고 진단하는 연구는 기혼여성이 친정과 빈번한 접촉을 통해 도구적지지를 교환하며 시집과 비교하여 질적으로 다른 정서적 친밀감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한다(C. Cho, 1997; Y. Lee, 2011). 반면 이러한 진단에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는 시각은 친정과 교류가 주로 자녀양육과 가사를 매개로 하여 기능적 성격이 지배적이며, 친정으로부터는 도구적지지를 받고 시집에는 도구적지지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 초점을 둔다(G. Han & S. Yoon, 2004; J. Kim, 2009; J. Lee, 1999; J. Lee, 2013; M. Sung, 2006). 이 논의를 달리 생각하면 원가족에서 출가한 기혼여성의 역할이 아들 특히 장남과 비교하여 얼마나 확대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물음이 된다. 본 연구는 원가족에서 기혼여성의 역할을 전국규모의 대표성 있는 자료와 적절한 통계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의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질적연구 중심의 선행연구를 발전시키되 기존 연구에서는 부부가 며느리와 사위로서 친정과 시집, 본가와 처가에 대해 가지는 의식과 태도(G. Han & S. Kim, 2010; G. Han & S. Yoon, 2004; J. Kim, 2009; S. Kim & B. Cho, 1991; J. Lee, 1999; Y. Lee, 2011)를 비교했다면 본 연구는 부모가 보고한 기혼의 아들과 딸의 행동을 살펴 부계중심성의 변화양상이 질적연구에서 지적한 방향과 일관되게 나타나는지를 관찰하였다. 둘째, 한 부모 아래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세대관계의 모습을 살펴 특정자녀만을 고려하거나 복수의 자녀를 일반화하는 등과 같이 기존 연구에서 보이는 방법론상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E. Grundy & S. Read, 2012; K. Hank, 2007; K. Park, 2003; C.

Tomassini et al., 2004). 셋째, 데이터의 장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통제변수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기존의 대표성 있는 자료를 사용한 연구(G. Han & S. Yoon, 2004)가 세대 간 접촉에 대해 기술통계치(descriptive statistics)만을 제시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분석을 통해 세대관계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할 수 있었다. 넷째, 세대 간 만남과 연락, 경제적지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자녀의 성과 출생순위를 함께 고려하지 않고 성별(아들과 딸의 구별)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는데(B. Cheong, 2007; S. Hong, 1999; J. Kim & E. Song, 2004) 부계중심적 가족주의에서 장남이 차지하는 지위를 고려할 때 출생순위와 성이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 부계지향성의 변화가 논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장남과 지차남을 구별하는 외에도 장녀와 지차녀를 구별하여 세대관계의 변화양상을 보다 면밀히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만남과 경제적지지에서 부계중심성이 드러난 반면 연락에서는 모계지향성이 관찰되었다. 부모들은 지차남, 장녀, 지차녀와 비교하여 장남과 만나는 빈도가 높고, 장남으로부터 보다 정기적으로 경제적지지를 받다고 보고하였다. 부계중심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표의 하나로 친정과 빈번한 대면접촉이 질적 연구에서 자주 거론되는데(C. Cho, 1997; J. Kim, 2009; J. Lee, 1999),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장남과 가장 자주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혼여성은 이전보다 빈번하게 친정부모와 만날 수 있으나 여전히 장남인 오빠나 남동생보다는 그 접촉빈도(혹은 대면접촉을 통해서만 가능한 도구적 지지교환)가 덜하여 기혼여성의 행동에 여전히 부계중심적인 경향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경제적지지의 경우 아내와 남편이 일상적으로 시집(본가)과 친정(처가)과 주고받는 지지를 비교한 선행연구에서는 그 결과가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 않았는데(H. Bae, 2008; G. Han & S. Kim, 2010; G. Han & S. Yoon, 2004; S. Kim & Y. Yoo, 1994; Y. Lee & S. Koh, 2011), 본 연구에서는 장남과의 경제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사용된 거주근접성은 부계중심성 논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아들 특히 장남은 부모와 동거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근거리에 거주하며 그 결과 부모와 도구적지지를 빈번하게 교환한다는 것이다(J. Kim, 2009; J. Lee, 1999). 예를 들어 J. Kim(2009)의 연구에 따르면 부계중심적 사고방식은 신혼부부의 거주지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시가/본가근처에 자리를 잡은 부부는 근거리거주의 영향으로 남편의 부모와 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탈부계화나 양계화의 지표로 기혼여성이 친정과 근거리에 거주하며 손자녀양육

이나 가사에서 도움을 받는다는 점이 지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추가분석을 통해 장남이 장녀, 지차녀와 비교하여 부모와 더 가까이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거주 근접성이 통제되어도 장남과의 접촉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구적지지는 대부분 대면접촉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혼여성이 친정부모로부터 이전보다 활발한 도구적 지원을 받고 또 준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장남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도구적 지지교환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부계중심성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부모와 별거하는 기혼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도출되었으며, 아들 특히 장남이 부모와 별거한다는 자체가 부계가족원리의 약화를 상징한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동시에 연구결과에서 분명히 드러난 세대관계의 모계지향성에도 주의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부모들이 장남과 지차남보다 장녀나 지차녀와 빈번한 연락을 나누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딸과 부모의 빈번한 정서적 교류경향을 지적하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F. Bucx et al., 2008; G. Han & S. Yoon, 2004; K. Hank, 2007; J. Kim, 2009; R. Ward et al., 2014). 연락빈도에서 장남과 지차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 역시 장남중심의 세대관계에 변화를 암시한다. 또한 부모가 제공하는 경제적지지에서 장남과 장녀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모가 제공하는 경제적지지는 자녀가 제공하는 경제적지지와 비교하여 그 규칙성에서 큰 차이가 있어(<Table 2>) 현실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남이나 연락을 어느 세대가 주도하는지, 그 성격과 내용이 어떠한지를 연구에서 고려할 수 없었다. 이는 대규모 조사의 한계점으로 특히 부모가 모든 자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각 자녀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만남과 연락을 통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가 정확히 파악되어야만 부계중심성이 어느 정도 약화되고 있는지 혹은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경제적지지가 얼마나 규칙적으로 이루어 졌는지를 살폈으며 그 액수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경제적지지를 통해 세대관계의 가치규범을 탐구한 선행연구 대부분에 해당되는 제한점인데(G. Han & S. Kim 2010; G. Han & S. Yoon 2004), 실제 세대 간 지원액을 고려한 연구(S. Kim & M. Park, 2008)에서도 부모와 아들 간 지원액의 규모가 커 본 연구의 결과와 일관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선행연구의 제한점에 비추어 부모의 관점에서 기혼의 아들과 딸을 비교하였다는 장점은

있으나, 데이터의 제한으로 아들과 딸이 사위로서 또 며느리로서의 처가/시가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가 동시에 고려될 수 없었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의 차이점을 생각할 때 어느 세대의 시점과 맥락에서 세대관계를 파악하는가는 현대 한국가족의 부계중심성을 보다 균형감 있게 파악하기 위해 중요하다.

한국가족의 특수성을 흔히 근대적 요소와 전통적 요소의 병존이라고 표현한다. 연구결과 세대 간 연락이 기혼의 딸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시에 부모부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면접촉과 경제적 교류가 여전히 장남을 중심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세대관계에서 전통적인 가치규범의 영향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결과가 부계중심주의 가치관의 현대적 변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탈부계화나 양계화의 과도기적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Allison, P. (2002). *Fixed effects regression models*. Thousand Oaks, CA: Sage.
- Bae, H. S. (2008). Amount of economic resources transfer to adult children among the middle aged and the elderly.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4(4), 81-106.
- Bucx, F., Van Wel, F., Knijn, T., & Hagendoorn, L. (2008). Intergenerational contact and the life course status of young adul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1), 144-156.
- Cheong, B. E. (2007). The reciprocity of intergenerational support exchange and its characteristics-Analyzing data on elders in Seoul area. *The Korean Association for Survey Research*, 27(2), 503-518.
- Cho, B. E. (1990). Intergenerational family solidarit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n aged parents. *The Korean Association for Survey Research*, 10, 105-124.
- Cho, C. M. (1997). The study of the bilateralization of Korean kin relationship.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13(1), 87-114.
- Choi, J. S. (1983). Bilateral descent and bilateral descent group. *Korean Cultural Anthropology*, 15, 139-157.
- Chon, K. K., & Rhee, M. K. (1992).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CES-D: A preliminary study.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 Program & Abstract*, 1992(1), 437-445.
- Grundy, E., & Read, S. (2012). Social contacts and receipt of help among older people in England: Are there benefits of having more children?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7(6), 742-754.
- Han, G., & Han, M. -A. (2004). Determinants of inter-generational support exchange patterns of adult children in Korea. *Family and Culture*, 16(1), 37-61.
- Han, G., & Kim, S. Y. (2010). Comparison of the paternal and maternal described in inter-generational support exchange determinant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4(4), 1-31.
- Han, G., & Yoon, S. -E. (2004). The bilateralization of the kinship relation in Korean families: Focused on the intergenerational exchange.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7(2), 177-202.
- Han, N. J. (1997). *Change of the Korean family system*. Seoul: Iljisa.
- Hank, K. (2007). Proximity and contacts between older parents and their children: A European comparis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1), 157-173.
- Hong, S. H. (1999). Family support for the elderly: A study by types of family membe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39, 322-349.
- Hong, S. -H. (2015).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elderly women's quality of life.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9(2), 1-26.
- Kim, H. -K. (2013). Failure of the patrilineal stem family system? Familialism and individualization among the generation of economic crisis of Korea in 1998.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7(2), 101-141.
- Kim, J. -H. (2009). A case study on kin relations of young married women in urban Korea: Focused on only daughters. *Family and Culture*, 21(4), 95-118.
- Kim, J. -K., & Song, E. -K. (2004). Determinants of financial interchanges and the amount of monetary exchanges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living in separate household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2(5), 75-89.
- Kim, S. A., & Cho, B. E. (1991). A study of familism and family support for the aged.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9(2), 303-322.
- Kim, S. K., & Yoo, Y. J. (1994). A study on the mutual support between married women and their mother-in-law and their mother.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2(1), 209-219.
- Kim, S. -M., & Park, M. -R. (2008). The factors contributing to financial resource interchange type and amounts of the middle aged and the elderly household.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6(5), 1-14.
- Koh, S. -K. (2011). Intergenerational resource transfers in the middle and the early old aged: An effect of financial resource.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5(1), 157-175.
- Koh, S. -K. (2013). The assets and intergenerational financial transfers among the middle-aged.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1(4), 131-144.
- Lee, J. (2013). Providing and utilizing child care by grandmothers in South Korea: Grandmothers' and employed mothers' relationship experienc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1(2), 1-24.
- Lee, J. K. (1999). Modern transformation of Korean family: Feminist analysis.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15(2), 55-86.
- Lee, Y. -B. (2011). Intergenerational caregiving and conflict between daughters/daughters-in-law and their elderly parents/parents-in-law. *Family and Culture*, 23(1), 41-76.
- Lee, Y. -J., & Koh, S. -K. (2011). Resource transfers between mothers and adult children: Financial resources and caregiving.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9(6), 137-151.
- Park, K. -S. (2000). Informal social ties of elderly Korean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34(3), 621-647.
- Pudrovska, T. (2008). Psychological implications of motherhood and fatherhood in midlife: Evidence from sibling model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1), 168-181.
- Son, Y. -J. (2008). A study on the interpersonal economic transfers between older parents and adult childre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42, 225-247.
- Statistics Korea. (2010). *Korean Women Manager Panel*. Retrieved from http://kosis.kr/common/meta_one_depth.jsp?vwcd=MT_OTITLE&listid=154_15410
- Statistics Korea. (2014). *General Social Survey*.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

&aSeq=332322&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EC%82%AC%ED%9A%8C%EC%A1%B0%EC%82%AC

- Steinbach, A. (2013). Family structure and parent-child contact: A comparison of native and migrant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5(5), 1114-1129.
- Sung, M. -A. (2007). Bilateralization phenomena in Korean families: A qualitative approach.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4(3), 59-72.
- Tomassini, C., Kalogirou, S., Grundy, E., Fokkema, T., Martikainen, P., Van Groenou, M. B., & Karisto, A. (2004). Contacts between elderly parents and their children in four European countries: Current patterns and future prospects. *European Journal of Ageing*, 1(1), 54-63.
- Ward, R, Deane, G., & Spitze, G. (2013). Life-course changes and parent-adult child contact. *Research on Aging*, 36(5), 568-602.
- Won, C. W., Rho, Y. G., Kim, S. Y., Lee, E., Yoon, J. L., Cho, K. -H., Shin, H. -C., Cho, B. R., Oh, J. R., Yoon, D. -K., Lee, H. S., & Lee, Y. S. (2002). The development of Korean activities of daily living (K-ADL) and Korea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K-IADL) scale. *Journal of the Korean Geriatrics Society*, 6(2), 107-120.

- Received: January 15. 2016
- Revised: March 27. 2016
- Accepted: April 8. 2016